

#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확대

### 12일부터 음식쓰레기 분리배출 읍·면으로 확대 28억 들여 지역내에 종량기 934대 등 설치 완료 전용 수거차량 7대·인력 16명 채용 등 준비 마쳐

제주시는 19개 동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 왔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이달 12일부터 5개 읍면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로써 제주시는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종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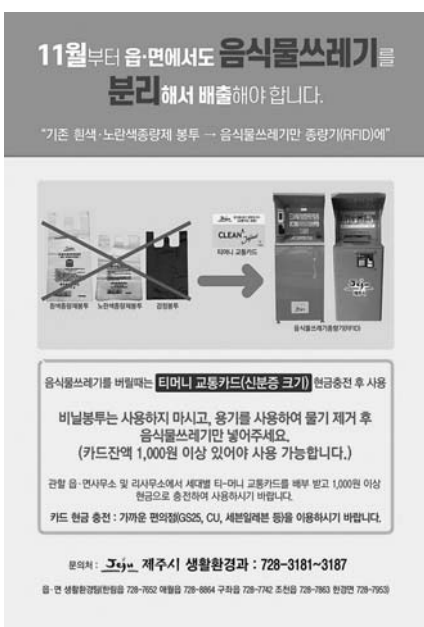
제주시는 지난 11월 8일 읍·면 지역 음식물쓰레기의 봉개 자원화시설 반입 건에 대해 봉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를 시행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총예산 28억 7500만원을 투입해 클린하우스 등

539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934대를 설치했고 공동주택 30개소 및 일반음식점 등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추진방식은 ▷봉투방식 ▷칩(스티커) 방식 ▷RFID 방식 3가지이다.

이 방식들 가운데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 배출량(종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취지를 고려할 때, RFID 방식의 무게측정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RFID 차량계량 장비를 장착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7대 구입과 수거인력 16명(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해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시행에 따른 읍·면 거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방송(TV, 라디오) 홍보와 읍·면·리 사무소의 협조로 세대별 홍보물을 배부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이용방법 안내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300여명을 채용·운영해

분리배출 시행 공감 유도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조기 정착에 모 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보다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배출 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의 원천감량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배출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읍면지역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으로 청정 제주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

### 제주시, 18일까지 69곳 대상 작성·관리실태 등 집중점검

제주시는 오는 1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9개소(문화 및 집회시설 2·종교시설 3·판매시설 7·여객용 시설 2·종합병원 4·관광숙박시설 51)를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실태와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응조직의 체계, 위기상황 발생 시 구성원의 역할과 상향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해 관리

하도록 돼 있다. 또 시설물의 소유자 등은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라 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반영해 실제 위기상황 발생 시 무리 없이 매뉴얼이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여부, 직원 개인별 입무카드 작성 및 숙지여부,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및 훈련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훈련실시 개선명령한 후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상황을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 제주 진피 ‘기능성 표시제’로 확장성 ↑

### 정부, 식품 기능성 표시 추진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진행 서귀포시, 상품화 등 고민 필요

정부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일반식품의 포장에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귀포시가 추진중인 감귤껍질(진피)을 활용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도 진피의 기능성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4일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6월부터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과 식품산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올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중인 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인 감귤분쇄 프로젝트는 남원읍에 유기농 진피 생산시설을 갖춰 체계적인 한약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진피를 제외한 과육은 음료나 가공제품으로 생산하고, 힐링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 6차산업화한다는 구상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생산량 증가로 가격하락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기본·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 본격화해 2022년까지 4년간 총 72억(국비 49억 포함)이 투입된다.

진피 수요량은 대한약전에 등재된 601개 한약재 중 11위를 차지할만큼 주된 한약재의 하나로 꼽힌다. 또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피 추출물은 간 기능 개선, 피부 보습, 항산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하순 서귀포시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6월부터 일반식품도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과 식품산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올 4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중인 서귀포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인 감귤분쇄 프로젝트는 남원읍에 유기농 진피 생산시설을 갖춰 체계적인 한약재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진피를 제외한 과육은 음료나 가공제품으로 생산하고, 힐링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 6차산업화한다는 구상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면 생산량 증가로 가격하락이 반복되는 감귤의 수급조절에도 일정

한편 서귀포시는 사업 선정후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창립총회와 추진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등기를 마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권역별 자문회의와 관계자 워크숍 등을 이어오고 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제주시, 업그레이드 작업

제주시는 새행정시스템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6일부터 7일까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이번 DBMS 업그레이드는 민원데이터의 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자는 데이터관리시스템의 성능 향상이 요구되고 있고, 현재 운영중인 DBMS 버전(오라클9i)의 기술지원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초고속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최신버전(오라클11g)으로 교체하게 된 것이다.

업그레이드 작업 중에는 제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전자민원창구, 부동산거래시스템, 세움터 등의 대민행정서비스 업무가 중단된다.

제주시는 그동안 늘어나는 전자기록물의 장기적 보존 및 안정적 민원처리를 위한 데이터 저장장치 증설, 유사시 장애 대응 모의훈련, 개인 정보 모니터링 등 시스템 안정화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고대로그자



순백의 옷으로 단장한 한라산 4일 오전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영실 상공에서 바라본 겨울 한라산. 선적지왓과 백록담 일대에 눈이 쌓여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 옛 세종의원 인근 공영주차장 복층화 완료

### 제주시, 46주차면 규모 조성

제주시는 구도심권 주차심화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 세종의원 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완료하고 정상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8억원이 투입됐으며 46주차면의 규모로 올해 6월에 착공해 지난달 26일 준공됐다. 1일 평균 180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는 한시적으로 상권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료로 개방해 시범 운

영하면서 주차회전율·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분석한 후 유료화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내년도 433억원을 투입해 주차난이 심각한 제주상공회의소 동측 공영 주차장 외 6개소에 공영 주차장 주차 전용 건축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부지 확보가 곤란한 주차심화지역은 복층화 사업을 통한 주차난 완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고대로그자

##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룩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잡초의 경감
-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 높은 저장성
-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 강력한 라임효과
- 뿌리혹병의 경감
-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사용 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 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염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 앵배추 브로컬리 무우 앵배추 → 희소식

###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앵배추 브로컬리 앵파배추 (500ml당 500배 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li> <li>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li> <li>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li> </ul>
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li> <li>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li> </ul>
무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li> <li>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li> </ul>
마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독: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li> <li>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li> <li>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li> <li>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li> </ul>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